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Orientation on Conflict Management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김경희, 최배석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Kyung-Hee Kim(karen145@naver.com), Bae Suk Choi(cbsk00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용음악전공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상관관계분석과 다변인 회귀분석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과 타협방식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낙관성은 회피방식과 복종방식, 희망은 지배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감성지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 타협방식을 구사하는 반면 회피방식과 복종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 감성이해는 통합방식, 복종방식, 타협방식, 자기감성이해는 회피방식, 감성조절은 지배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과 타협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복종방식,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지배방식,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회피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 긍정심리자본 | 감성지능 | 문화성향 | 갈등관리방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orientation on conflict management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ver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83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with mo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ve chosen to use integration and compromise in conflict managements. In particular, self-efficacy has been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integration and compromising, optimism on avoiding and obeying, and hope on dominating. Second, respondents with more emotional intelligence have chosen to use more integration and compromising, however they have chosen to use less avoiding and obeying in conflict managements. Particularly, others' emotional appraisal has been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integration, obeying and compromising, self-emotional appraisal on avoiding, and regulation of emotion on dominating. Third, respondents with horizontal/vertical collectiv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have intended to use integration and compromising in conflict managements, additionally horizontal individualism of cultural orientation has been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integration and compromising, horizontal collectivism on obeying, vertical individualism on dominating, vertical collectivism avoiding.

■ keyword : | Positive Psychological | Emotional Intelligence | Cultural Orientation | Conflict Management |

1. 서론

갈등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학생은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 정체감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와 실제 도움 받고 싶은 문제로 대인관계문제가 각각 29.9%, 21.6%로 나타나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1].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대인관계의 신뢰감을 약화시키며 관계를 악화,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 그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2]. 실제로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방식은 개인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대인갈등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촉진시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며, 친밀감이나 상호신뢰감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3][4]. 이처럼 갈등은 대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감성적,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갈등관리방식은 대인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5]으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긍정심리자본의 유용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 스트레스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강점을 개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6]. 실제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을 덜 경험하고,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8].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잘 극복하게 도와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감성지능 역시 갈등을 상호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대인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감성지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9].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며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능력[10]이기 때문에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람의 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문화적 요인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자기정의, 규준과 가치의 패턴인 문화성향은 개인의 행동이나 적응양식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11]. 특히 문화성향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2]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방식은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갈등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실용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교육적 측면과 진로적 측면을 다루고 있을 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좌우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탐색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일반대학생과 달리 다양한 문화자산을 지니고 있어 감성적이며 문화성향의 특별성으로 더욱 가치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의 강점과 심리적 능력을 기초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3].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요소와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로 되어 있다[14].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과 끈기를 보이며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발휘한다[15].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필요에 따라서 목표경로를 재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이다[16]. 낙관성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와 전망을 하는 인지적 성향이자 어떠한 역경과 좌절에도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며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자 행복을 예언하는 요인이다[6][13]. 회복탄력성은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며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

을 의미한다[17]. 또한 역경에 처했을 때 참고 역경을 다른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념을 토대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18].

긍정심리자본과 갈등관리방식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낙관성과 갈등관리방식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들은 타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적응적인 방식으로 갈등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낙관적인 성인들도 타협과 협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22]. 또한 좌절상황에서도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이겨내며, 충동을 통제하고, 스트레스로 합리적 사고가 저하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규율할 수 있고, 타인을 공감하며 희망을 유지하는 능력이다[9].

Wong과 Law[23]는 감성지능을 자신의 깊은 감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한 후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의 4가지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자기감성 이해는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타인감성 이해는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타인감성 이해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며 감정이나 느낌에도 민감하다.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감성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한다. 감성활용은 자신의 목적달성, 문제해결, 성과추진을 위해 자신의 감성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또한 도전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감성지능과 갈등관리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감성지능 중 감성 활용을 잘하는 전문대 대학생들은 갈등상황에서 타협, 통합, 경쟁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자신의 감성인식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회피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성활용, 감성인식과 같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질충과 협력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5].

3. 문화성향

문화성향이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개인적 시각으로 사회 및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문화적인 틀이다[26]. 여러 학자들은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의 자아를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 독립성, 개인의 목표와 신념 중시,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개인들간의 경쟁을 수용하고 평등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 또는 중요한 사회 조직에 동화되고 반영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집단, 타인의 이익이나 행복, 집단의 통합과 조화, 협동을 중요시하며 의견차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향이다[27][28].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29]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문화분류에 수평적-수직적 차원을 도입하여 확장시켜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로 범주화하였다.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한편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위계, 지위가 존재하며 차별성을 인정한다. 또 경쟁적이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중시한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봉사과 희생을 중요시 한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지만 지위에서는 타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집단주의 자아는 상호의존적이며 평등을 중요시하고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30-32].

문화성향과 갈등관리방식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지배방식을 선호한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통합과 순응방식을 선호하였다. 또한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회피방식을 줄이는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지배방식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직적 집단주의자는 수직적 개인주의자보다 회피방식이 높으며,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자들은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자에 비하여 지배방식이 높고, 수평적 집단주의자는 수직적 집단주의자보다 복종방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4].

4. 갈등관리방식

갈등관리방식이란 대인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5]으로 갈등의 결과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리하려고 하며 이때 일관되게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사용한다. 많은 학자들은 갈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방식을 연구하여 그 구성요소와 척도를 제시하였다.

Rahim[35]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교차하여 통합, 타협, 지배, 복종, 회피의 5가지 갈등관리방식을 제안하였다. 통합방식은 자신과 상대방의 목적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상호 모두의 관심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갈등에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타협방식은 자신과 상대방의 목적에 모두 중간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를 얻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중간안을 선택하며 협상, 주고 받기, 중도입장 추구를 시도한다. 지배방식은 자신의 목적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목적에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며 경쟁적이고 때로는 강요적이다. 종종 상대방의 욕구와 기대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활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복종방식은 자신의 목적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목적에는 높은 관심

을 드러내는 유형이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며 조화와 공통성을 강조한다. 회피방식은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목표에 모두 낮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쌍방 모두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불평을 억제하고 개방적, 공개적 논의를 피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행태를 취한다[4][36][37].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감성지능은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문화성향은 갈등관리방식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측정도구

2.1 긍정심리자본

Luthans, Avolio, Avey, Norman[13]이 개발한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요인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80 (M=3.48, SD=.548), 낙관성 .80(M=3.36, SD=.553), 희망 .66(M=3.46, SD=.583), 회복탄력성 .68(M=3.36, SD=.553)의 알파값을 보여주었다.

2.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23]가 개발한 WLEIS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문항씩 총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요인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자기감성 이해 .83(M=3.63, SD=.602), 타인감성 이해 .71(M=3.70, SD=.578), 감성조절 .74(M=3.41, SD=.662), 감성활용 .83(M=3.38, SD=.725)의 알파값을 나타냈다.

2.3 문화성향

Singelis, Triandis, Bhawak, Gelfand[29]가 개발한 INDCOL(Individualism-Collectivism) 문화성향 척도를 김기범[38]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개 문항씩 총 3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요인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수평적 집단주의 .78(M=3.56, SD=.530), 수직적 집단주의 .64(M=3.41, SD=.472), 수평적 개인주의 .74(M=3.60, SD=.483), 수직적 개인주의 .71(M=3.23, SD=.550)의 알파값을 보여주고 있다.

2.4 갈등관리방식

Rahim[35]이 개발한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II(ROCI-II)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합유형, 타협유형, 지배유형, 복종유형, 회피유형의 5개 요인의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7개 문항씩 총 3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요인의 Cronbach's a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통합유형 .82(M=3.60, SD=.502), 타협유형 .61 (M=3.43, SD=.436), 지배유형 .68(M=3.00, SD=.512), 복종유형 .76(M=3.35, SD=.512), 회피유형 .72(M=3.23, SD=.568)의 알파 값을 나타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도권 지역과 충청지역의 실

용음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2018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7개교에서 약 3주간 이루어졌다. 총 301부가 수거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부실한 18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283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변인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이 연구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자가 62.5%(177명), 남자가 37.5%(106명)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9.5%(140명)로 가장 높았고, 1학년 32.9%(93명), 3학년 13.1%(37명), 4학년 4.6%(13명) 순으로 분포되었다.

IV. 분석결과

1. 긍정심리자본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실용음악과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은 갈등관리 방식 간에는” 타협방식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통합방식, 타협방식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통합방식($r = .52, p < .01$), 타협방식($r = .41, p < .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지배방식($r = .14, p < .05$)과는 미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피방식, 복종방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요인 역시 통합방식($r = .45,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협방식($r = .28, p < .01$), 지배방식($r = .19, p < .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피방식, 복종방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의 경우에도 통합방식($r = .44,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어 타협방식($r = .31,$

$p < .01$)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회복탄력성은 회피방식, 지배방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낙관성 요인은 통합방식($r = .23, p < .01$), 지배방식($r = .15, p < .05$)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방식 ($r = -.19, p < .01$), 복종방식($r = -.15, p < .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낙관성은 타협방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실용음악과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 타협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긍정심리자본과 갈등관리방식간의 상관관계

변인	효능감	희망	회복 탄력성	낙관성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효능감	-								
희망	.65**	-							
탄력성	.58**	.62**	-						
낙관성	.47**	.54**	.57**	-					
통합	.52**	.45**	.44**	.23**	-				
회피	-.10	-.11	-.09	-.19**	.13	-			
지배	.14*	.19**	.07	.15*	.14*	-.02	-		
복종	.06	-.01	.14*	-.15*	.36**	.52**	.14*	-	
타협	.41**	.28**	.31**	.09	.72**	.25**	.33**	.59**	-

* $p < .05$ ** $p < .01$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에서 어느 변인이 갈등관리방식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통합방식($\beta = .36, p < .01$), 타협방식($\beta = .38, p < .01$)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회피방식($\beta = -.17, p < .05$), 복종방식($\beta = -.22, p < .01$)에 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은 지배방식($\beta = .17, p < .05$)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실용음악과 대학생들은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과 타협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낙관성이 적은 대학생들이 회피방식과 복종방식을 가장 많이 구사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표 2. 긍정심리자본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β 값	β 값	β 값	β 값	β 값
자기효능감	.36**	-.03	.06	.10	.38**
희망	.16*	-.04	.17*	-.09	.02
회복탄력성	.21**	.06	-.11	.20**	.19*
낙관성	-.11	-.17*	.10	-.22**	-.05
R ² 값	.56	.18	.20	.21	.45
수정된 R ²	.31	.02	.04	.04	.19
F	32.07**	4.80*	2.90*	3.08*	17.14**

* p< .05 ** p< .01

2. 감성지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실용음악과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성지능과 갈등관리방식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지능은 통합방식, 타협방식과는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회피방식, 복종방식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 요인 중 자기감성이해는 통합방식($r=.32,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타협방식($r=.25,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방식($r=-.17, p<.05$)과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배방식, 복종방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타인감성이해 역시 통합방식($r=.41,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협방식($r=.33, p<.01$), 복종방식($r=.24, p<.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피방식, 지배방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감성조절의 경우에도 통합방식($r=.25,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어 타협방식($r=.18, p<.01$)과 낮은 수준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회피방식($r=-.15, p<.05$), 복종방식($r=-.15, p<.05$)과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타협방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성활용도 마찬가지로 통합방식($r=.23,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배방식($r=.15, p<.05$)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회피방식($r=-.19, p<.01$),

복종방식($r=-.15, p<.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의 감성지능이 높은 실용음악과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 타협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감성지능과 갈등관리방식간의 상관관계

	자기 감성 이해	타인 감성 이해	감성 조절	감성 활용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자기감성	-								
타인감성	.44**	-							
감성조절	.39**	.24**	-						
감성활용	.19**	.11	.35**	-					
통합방식	.32**	.41**	.25**	.23**	-				
회피방식	-.17*	-.04	-.15*	-.19**	.13	-			
지배방식	-.02	.10	.18**	.15*	.14*	-.02	-		
복종방식	.05	.24**	-.15*	-.15*	.36**	.52**	.14*	-	
타협방식	.25**	.33**	.11	.15*	.72**	.25**	.33**	.59**	-

* p<.05 ** p<.01

감성지능 여러 요인 중에서 어느 변인이 갈등관리방식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성지능 요인 중 타인감성이해는 통합방식($\beta=.35, p<.01$), 복종방식($\beta=.30, p<.01$), 타협방식($\beta=.27, p<.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성이해는 회피방식($\beta=-.18, p<.01$), 감성조절은 지배방식($\beta=.18, p<.01$)에 가장 높은 예측력과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타인감성이해 지능이 높은 실용음악과 대학생들은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 복종방식, 타협방식을, 감성조절 능력이 높은 대학생은 지배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자기감성이해 능력이 낮은 대학생들은 회피방식을 가장 많이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감성지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β 값	β 값	β 값	β 값	β 값
자기감성이해	.14*	-.18**	-.10	.01	.14*
타인감성이해	.35**	.07	.10	.30**	.27**
감성조절	.07	-.13	.18**	-.21**	-.05
감성활용	.17**	.15*	.09	.20**	.10
R^2 값	.48	.24	.22	.37	.36
수정된 R^2	.22	.06	.05	.13	.12
F	20.31**	4.07**	3.43**	10.72**	10.35**

* p < .05 ** p < .01

3.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은 실용음악과 대학生の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성향과 갈등관리방식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성향은 통합방식, 타협방식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성향 중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은 타협방식($r=.47, p<.01$), 통합방식($r=.44, p<.01$), 복종방식($r=.37, p<.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배방식($r=.16, p<.01$)과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 역시 통합방식($r=.48, p<.01$), 타협방식($r=.39, p<.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종방식($r=.17, p<.01$), 회피방식($r=.14, p<.05$)과도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도 통합방식($r=.52, p<.01$), 타협방식($r=.46, p<.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 지배방식($r=.28, p<.01$), 복종방식($r=.21, p<.01$)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은 지배방식($r=.36,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타협방식($r=.18, p<.01$), 통합방식($r=.17, p<.01$)과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은 회피방식, 복종방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문화성향과 갈등관리방식간의 상관관계

	수평 집단주의	수직 집단주의	수평 개인주의	수직 개인주의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수평집단	-							
수직집단	.52**	-							
수평개인	.39**	.31**	-						
수직개인	.23**	.38**	.32**	-					
통합방식	.44**	.48**	.52**	.17**	-				
회피방식	-.01	.14*	-.08	-.02	.13	-			
지배방식	.16**	.11	.28**	.36**	.14*	-.02	-		
복종방식	.37**	.17**	.21**	.05	.36**	.52**	.14*	-	
타협방식	.47**	.39**	.46**	.18**	.72**	.25**	.33**	.59**	-

* p < .05 ** p < .01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듯이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통합방식($\beta=.40, p<.01$), 타협방식($\beta=.33, p<.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복종방식($\beta=.36, p<.01$)에 가장 높은 예측력과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지배방식($\beta=.33, p<.01$),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회피방식($\beta=.16, p<.05$)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감성지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통합	회피	지배	복종	타협
	β 값	β 값	β 값	β 값	β 값
수평 집단주의	.15*	-.04	.06	.36**	.28**
수직 집단주의	.33**	.16*	.10	-.03	.17**
수평 개인주의	.40**	-.10	.19**	.09	.33**
수직 개인주의	-.12*	-.03	.33**	-.05	-.06
R^2 값	.64	.21	.42	.38	.58
수정된 R^2	.41	.05	.17	.16	.33
F	47.82**	3.39*	15.12**	12.79**	34.01**

* p < .05 ** p < .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체계적으로 밝혀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갈등관리방식간에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은 통합방식, 타협방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낙관성은 회피방식, 복종방식과 낮은 수준이지만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적이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낙관적인 대학생일수록 갈등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복종하는 갈등관리방식을 적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갈등관리방식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낙관성은 회피방식과 복종방식, 희망은 지배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은 대학생은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중도입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낙관적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들이 타협적이고 문제해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9],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적응적, 타협적, 협력적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20][21]를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갈등관리방식간에는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지능은 통합방식, 타협방식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회피방식, 복종방식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감성지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갈등에 직면했을 때 통합방식, 타협방식을 구사하여 대처하는 반면 회피방식과 복종방식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성지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타인감성이해

는 통합방식, 복종방식, 타협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성이해는 회피방식, 감성조절은 지배방식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타인감성이해 지능이 높은 대학생은 갈등을 상호원-원하는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식, 일부를 얻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타협적인 방식, 상대방의 욕구나 관심을 헤아려 순응함으로써 조화를 추구하는 양보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대학생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정서조절 능력이 있는 대학생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지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감성활용을 잘하는 대학생이 타협, 통합, 경쟁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자기감정인식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회피방식을 적게 사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4]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감성활용, 감성인식 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절충과 협력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연구[25]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문화성향과 갈등관리방식간에는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는 통합방식, 타협방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수직적 개인주의는 지배방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주로 통합과 타협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배방식을 많이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복종방식,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지배방식,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회피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지위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

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협력적이고 타협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평등을 중요시하면서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자는 갈등상황에서 조화를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순응하는 양보방식을 많이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적이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수직적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봉사과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자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지배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통합과 순응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33]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서 복종방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34]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이 많은 대학생들이 상호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실용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실기와 공연과정에서 대인갈등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교과과정에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심리자본과 감성지능을 체계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실용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감성적 자원과 갈등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의 실용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하고 해결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향후 보완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지애, 한세영,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4호, pp.135-150, 2016.

[2] W. W. Wilmot and J. L. Hocker, *Interpersonal Conflict (6th Ed.)*, New York, NY: McGraw Hill, 2001.

[3] 이희영, 천태복,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228-239, 2005.

[4] M. L. Gross and L. K. Guerrero, “Managing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An application of the competence model to Rahim’s organizational conflic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11, pp.200-226, 2000.

[5] W. R. Cupach and D. H. J. Canary, *Competence in interpersonal conflict*, New York: Mcgraw-hill, 1997.

[6] 정동숙,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사회적 자본과 학교 부적응*,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7] 심수연, 김용수, “불안정 성인애착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pp.95-105, 2015.

[8] 장정임, 김성봉,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pp.447-465, 2015.

[9]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10] 한아름, 오인수, “학교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교원교육*, 제30권, 제2호, pp.227-251, 2014.

[11] H. C. Triandi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69, No.6, pp.907-924, 2001.

- [12] W. B. Gudykunst, "Cultural variability in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24, pp.327-348, 1997.
- [13]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and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al Psychology*, Vol.35, pp.541-571, 2007.
- [14] F. Luthans, C. M. Youssef, and B. J. Avolio,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Paju: Lux Media, 2007.
- [15]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1997.
- [16] C. R. Snyder,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re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1994.
- [17]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호, pp.5-131, 2009.
- [18] A. S. Masten and M. J. Reed,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74-88, 2002.
- [19] 서수경, *병원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서혜인, 신나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낙관성이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7권, 제5호, pp.65-82, 2016.
- [21] 노현숙, *낙관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2] J. D. Mayer and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1990.
- [23] C. S. Wong and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 [24] 김정아, "정서지능과 갈등관리 스타일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교교육연구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pp.100-122, 2009.
- [25] 임수진, 이재신,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 전략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5권, 제1호, pp.173-194, 2017.
- [26] H. R. Markus and S. Kitayama, "The cultural psychology of personal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9, pp.63-87, 1998.
- [27] H. R. Markus and S. Kitayam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8, No.2, pp.224-253, 1991.
- [28] T. M. Singelis,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0, pp.580-591, 1994.
- [29] M. Singelis, H. C. Triandis, D. D. Bhawuk, and M. Gelfand,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Vol.29, pp.240-275, 1995.
- [30] T. M. Singelis and W. J. Brown,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1, No.3, pp.354-389, 1995.
- [31] H. C. Triandis,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69, No.6, pp.907-924, 2001.
- [32] 박여미, 조궁호,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일관성 선호경향 및 가치관 수용의 관계," *인간이해*, 제26권, pp.69-91, 2005.
- [33] 김호경, "문화성향과 갈등관리행태의 관계,"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3호, pp.61-89, 2011.
- [34] 최태진,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교우간 갈등 해결전략,"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5-31, 2006.
- [35] M. A. Rahim,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6, pp.368-376, 1983.

[36] M. A. Rahim, “Referent role and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25, pp.79-86, 1986.

[37] M. A. Rahim, N. R. Magner, and D. L. Shapiro, “Do justice perceptions influence styles of handling conflict with supervisor?: What justice perceptions, precisel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11, 2000.

[38] 김기범,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저 자 소 개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음악학사
- 1993년 2월 : 숙명여자대학원 음악교육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융합문화예술컨텐츠, 4차산업문화혁명

최 배 석(Bae Suk Choi)

정회원



- 1984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1994년 2월 : 뉴욕시립대학교 TV/ Radio 학과(석사)
- 201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1998년 3월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화, 문화예술컨텐츠, 소통심리학